

현지에서 내리신 류다른 명령

주체103(2014)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어느한 인민군 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랭동시설의 건설정형과 수산물랭동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물고기잡이에서 계속 앞장에 서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오늘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헬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것을 안겨주시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기울으신 심혈과 로고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듯 원아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히 먹이시기 위해 차디찬 바다바람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먼길을 달려오신것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인민군대가 다 맡자는 구호가 참으로 좋다고,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하루도 번지지 말고 물고기를 공급해주는 사업을 인민군대가 맡아하자고 하시면서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최고사령관명령을 현지에서 하달하시였다.

현지에서 내리신 류다른 명령!

진정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제일로 위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만이 내리실수 있는 사랑의 명령이였다.